

##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및 금연 경험

김혜숙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 The Experiences of Smoking and Non-smoking in Male Adolescents

Hye Sook Kim  
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16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어른 놀이'는 참여자들의 첫 흡연 과정을 나타낸다. '흡연 초기 담배에 대한 거부감'은 기대와는 다른 첫 흡연 경험 후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말하며, '다시 시작된 흡연'은 또래 그룹과 어울리고, 담배의 맛을 시험하기 위해 재흡연을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금연을 어렵게 하는 근목자혹의 환경'은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의 모습을 나타낸다. '금연과 흡연 사이의 갈등'은 참여자들의 반복되는 금연 시도 이유와 재흡연의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비흡연 청소년의 흡연하지 않는 이유'는 흡연 청소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흡연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및 금연 경험은 여학생이나 어른들과는 다른 독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남학생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smoking and non-smoking experiences of male adolescents in high schoo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6 participants. Thematic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Six themes emerg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mitating adults with curiosity" delineates first smoking experiences of participants. "Repulsion of cigarettes after first smoking" describes changes in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smoking after first experience and "Resumed smoking" illustrates re-smoking process to be a peer group and test the taste of cigarettes. "Environmental risks of adolescents smoking" depicts adolescents easily exposed to cigarettes. "Conflicts between smoking and quitting smoking" describes repeated tries to quit smoking and re-smoking processes. Lastly "Reasons of non-smoking for non-smoking adolescents" illustrates the reasons for their non-smoking. Smoking and non-smoking experiences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female students and ad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ograms for preventing smoking and non-smoking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and executed for male adolescents to improve their health.

**Keywords** : Smoking, Non-Smoking, Male, Adolescent, Qualitative Research

---

\*Corresponding Author : Hye Sook Kim(Suwon Science College)

Tel: +82-31-350-2470 email: hs\_kim@ssc.ac.kr

Received April 11, 2019

Revised May 2, 2019

Accepted June 7, 2019

Published June 30,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와 흡연은 조기사망 및 각종 질병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졌고, 그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역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17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의 매일흡연율은 31.4%로 OECD 3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아[2] 추가적인 흡연 예방 및 금연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성인 흡연자의 99%가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매일 흡연하는 성인의 88%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3],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청소년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2017년에 발표한 OECD 회원국의 15세 청소년 흡연율은 약 12% 정도였으며[2],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발표된 자료에서 고등학교 1학년 흡연율은 7.7%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4].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학교 중심의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학교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5].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비준 및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을 강조하고 있다[6]. 이 영향으로 최근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생 흡연 경험율과 현재 흡연율은 2007년에 비해 2018년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4]. 그러나 청소년 흡연에 대해 성별과 학교를 나누어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동안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중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크게 낮아진데 반해, 고등학교 남학생의 평생 흡연 경험율과 현재 흡연율은 각각 28.9%, 14.1%로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으며, 이들은 흡연 청소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높고, 매일 흡연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보다 4배 정도 많아[4],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및 금연 경험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남녀 청소년 흡연율 차이는 성인에까지 이어져 극명하게 나타났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매일 흡연율은 OECD 35개국 중 상위권인 반

면, 여성의 경우는 최하위로 나타나 남녀 흡연율 격차는 28%p나 벌어졌다[2]. 사회문화적으로 흡연에 대해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남녀 성별 특성에 따른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증재가 이루어져야 한다[7]. 이를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별화된 흡연의 동기, 목적, 경험 등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증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연구는 흡연의 영향요인이나[8-10], 우울, 음주, 약물 남용, 자살생각 등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등이 대부분이었다[11-13]. 일부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 경험을 확인한 연구가 있지만, 흡연 중에도 왜 금연을 시도 하는지, 똑같이 담배를 접하는 환경에서도 일부는 왜 흡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14]. 게다가 약 20년 전의 연구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지금의 고등학생과 과거의 고등학생이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여학생의 흡연 경험에 대한 연구 또한 흡연율 및 흡연 동기 등에서 남학생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15], 소위 문제아로 분류된 흡연 중학생에 대한 연구도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및 금연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을 통해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 및 금연 경험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이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6] 이들의 흡연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의 파악은 궁극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증재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주제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 및 금연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향후 청소년의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등학교 남학생 청소년으로, 한

번이라도 흡연의 경험이 있거나, 흡연을 권유받았던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면담과 녹취를 수락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기도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8명과, 충청남도 소재 특성화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8명을 인터뷰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각각 60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9월 14일에서 9월 21일까지이다.

### 2.3 자료분석

전사된 자료는 Braun과 Clarke(2006)의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에 따라 6단계로 분석하였다[17]. 첫 번째는 수집된 자료와 친밀해지기(familiarising yourself with your data)단계로, 모든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료에 몰입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또한 자료에 집중하고 연구 현상에 대한 직관과 통찰력을 얻고자 하였으며, 초기에 생각들을 메모하였다. 두 번째는 초기 코드 생성하기(generating initial codes) 단계로, 전체 자료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코드화하였다. 또한 각각의 코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자료 수집하였다. 세 번째는 주제 찾기(searching for themes) 단계로, 잠재적인 주제에 속하는 코드들을 모으고, 각 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네 번째는 주제 검토하기(reviewing themes) 단계로, 전체 자료, 코드화된 자료와 관련하여 주제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을 통해 주제 지도를 만들었다. 다섯 번째는 주제를 정의하고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단계로, 각 주제의 세부사항과 말하고자 하는 전반적 스토리를 다듬어 주제를 정의하고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는 보고서 작성하기(producing the report) 단계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생생한 발췌 예문을 선택하고, 이것이 자료의 서술을 넘어 연구문제에 관한 논거가 되도록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2.4 타당성 확보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Sandelowski가 제시한[18]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신뢰성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는가를 말하며, 본 연구는 사전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 질문을 보완하고 가능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내용의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적합성은 연구 결과가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데, 연구 참여자의 성별, 나이, 경제 상태, 학업 성적, 건강 수준, 스트레스 정도, 첫 흡연 연령, 가장 친한 친구 5명 중 흡연자수, 흡연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비슷한 조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가능성이란 연구자 외에 다른 사람도 연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가를 말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참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고 이를 통해 감사가능성을 확립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연구 과정이 편중되지 않고 연구자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이 모두 확립되었을 때 확보된다.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부터 분석, 결과 도출까지 중립적인 시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신뢰성, 적합성과 감사가능성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확인가능성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됨을 밝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렸다. 또한 면담 이후 연구자에게 요청하면 면담의 내용의 삭제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사된 자료는 모두 폐기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면담 자료는 익명 처리하여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한편, 연구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 2.6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및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로드맵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청소년 흡연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질적 연구 측면에서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수하고 질적 연구 학회 회원으로 연구세미나에 참여하였으며, 다수의 질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 3. 연구결과

총 1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모두 연령은 18세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다. 8명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8명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경제 상태는 '중'이라고 인지한 참여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성적은 '하'가 11명, 건강수준은 '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스트레스 정도는 '조금' 있는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 번이라도 흡연을 한 참여자들의 첫 흡연 연령은 평균 15.2세였으며, 참여자들의 친한 친

구 5명 중 흡연하는 친구는 4.4명이었다. 또한 흡연을 경험한 참여자의 현재 흡연량은 하루 6-9개비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16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어른 놀이', '흡연 초기 담배에 대한 거부감', '다시 시작된 흡연', '금연을 어렵게 하는 근목자혹의 환경', '금연과 흡연 사이의 갈등', '비흡연 청소년의 흡연하지 않는 이유'이다 (Table 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Perceived economic status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Perceived health level	Perceived stress level	Age at starting smoking	Motive of smoking	Number of friends who smoke among 5 closest friends	Daily cigarette consumption
1	High	low	High	None	16	Peer*	5	2-5
2	Middle	low	High	None	15	Curiosity	5	10-19
3	Middle	low	Middle	High	17	Peer*	5	20 <
4	Middle	Middle	High	low	16	Peer*	4	6-9
5	Middle	low	High	low	14	Look cool	5	6-9
6	High	High	High	low	X	X	5	X
7	High	low	low	High	X	X	3	X
8	Middle	low	High	High	14	Curiosity	5	6-9
9	Middle	High	High	low	17	Stress	3	6-9
10	Middle	low	High	low	16	Peer*	5	6-9
11	Middle	low	Middle	low	17	Peer*	5	1
12	Middle	Middle	Middle	low	17	Peer*	4	1
13	Middle	low	High	low	17	Peer*	4	6-9
14	Middle	low	High	low	11	Curiosity	5	10-19
15	Middle	low	Middle	low	10	Curiosity	4	<1
16	Middle	Middle	High	low	16	Look cool	5	10-19

Peer\*=Peer encouragement

Table 2. Themes and Sub-themes of the Findings

Themes	Sub-themes
Imitating adults with curiosity	1) Fantasy about cigarette 2) Smoking with friends for fun
Repulsion of cigarettes after first smoking	1) Different first impression of smoking than expected 2) Reluctance to smoke due to education
Resumed smoking	1) Friendly gesture to get a closeness 2) Self test to know the taste of cigarettes
Environmental risks of adolescents smoking	1) Too easy for adolescents to buy cigarettes 2) Indulgent parents about adolescents smoking 3) Adults as onlookers
Conflicts between smoking and quitting smoking	1) Trying to quit smoking due to physical changes 2) Addiction to cigarettes without alternatives
Reasons of non-smoking for non-smoking adolescents	1) My dream precious more than smoking 2) Preventing adolescents from smoking by strict parents

## 1. 제1주제: 호기심에서 시작한 어른 놀이

참여자들 대부분 어른들에게만 허용되는 담배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담배를 피우면 멋져 보이거나 어른처럼 힘이 세지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우연히 손에 쥐게 된 담배는 새로운 놀이감이었고, 첫 흡연은 친구와 함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즐거운 장난이었다.

### 1) 일시적 금기에 대한 환상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금지된 흡연이라는 행동을 하면 어른에게 반항하는 힘 또는 어른이 된 것 같은 성숙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멋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도 담배를 피우면 힘이 세지고 멋있게 보이리라고 믿었다.

*“할아버지가 피다 남은 담배꽂초를 한 입 가스레인에 붙여가지고 피 봤어요. 뭔가, 되게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 때 당시에 좀 센 거 같았어요. 세다 이렇게 있었어요. 뭔가 성숙해진 느낌” (참여자 15)*

*“딱 학교 드라마도 나오면 일진이라고 표현되는 애들이 다 담배를 피잖아요. 먼저 그런거를 안 만들고 안 세 보이게 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피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참여자 16)*

### 2) 친구와 함께 한 담배 장난

참여자들은 대부분 우연히 처음 담배를 접하게 되었다. 길거리에 떨어져있던 담배 꽂초나 새 담배갑을 줍거나, 아버지의 옷을 입었다가 옷 안에 담배가 있었다거나, 먼저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담배를 권해서 처음 피워본 경우가 많았다. 흡연 동기 중에 ‘친구의 권유’는 이미 흡연을 한 친구가 담배를 피워 보라고 준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보지 않았던 친구끼리 우연히 손에 쥐게 된 담배를 피워 보자라는 의미도 있었다. 혼자서 담배를 피워보았다는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이들이 처음 담배를 구하고 피워보는 과정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장난에 불과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몰래하는 장난은 새로우면서도 두려운 경험이었다.

*“그냥 놀러가다가 땅바닥에 있는 꽂초를 주워가지고 피보자 피보자 해서 피다가.” (참여자 5)*

*“중 2때 친구들이 담배 피는거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친구들한테 하나만 주라고 해서 폼났어요.” (참여자 2)*

## 2. 제2주제: 흡연 초기 담배에 대한 거부감

이 주제는 처음 담배를 접한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낸다. 처음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담배를 피우게 된 이후 대부분의 참여자는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흡연에 대한 환상과 실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흡연은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배우고 금연의 시기를 가졌다.

### 1) 기대와 다른 흡연의 첫인상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흡연 이후의 모습은 성숙하고 멋진 어른의 모습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뭔가 전과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첫 흡연 경험은 대부분 좋지 않았다. 너무 어지럽거나 목이 따가웠고, 쓴 맛 밖에 없기도 하였으며 불쾌한 냄새도 났다. 한편, ‘아무 맛이 안났어요’, ‘별로 아니었어요’라고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담배를) 갖고 나와서 하나를 폼는데 너무 어지럽고 목이 따가워서 다 버렸어요” (참여자 8)*

*“별로 쓴 맛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안피다가.” (참여자 12)*

### 2) 교육으로 인한 담배 경계

참여자들이 처음 담배를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첫 흡연이 대부분 좋은 기억이 아니었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통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배우면서 참여자들은 담배를 경계하게 되었다.

*“어쩌다가 그냥 끊게 된 건, 끊으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선생님) 사람들이 계속 나쁘다 하니까. 학교에서요.” (참여자 2)*

### 3. 제3주제: 다시 시작된 흡연

이 주제는 청소년들이 학년이나 학교가 바뀌는 등 고학년이 되면서 다시 흡연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자신은 처음 흡연 경험이 좋지 않았지만 주변에 흡연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담배를 피우기 보다는 주변의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흡연 기간이 긴 친구들을 통해서 담배를 피우는 법을 새롭게 배웠고, 담배의 맛을 느끼기 위해 계속 피워보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쳤다.

#### 1) 친밀감을 얻기 위한 다정한 제스처

새롭게 학년이 바뀌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가는 등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시기에 참여자들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원하는 담배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담배를 권하는 것은 호의적인 뜻이었기 때문이다. 담배라는 소소한 일탈을 공유하는 친구들은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쉽게 어울리며 친해질 수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한 번 퍼보라 해가지고 퍼봤어요. 때릴 것 같았어요. 아니 (같이) 못 놀 거 같은. 따돌림 (당할 것 같은)” (참여자 11)*

*“친한 친구들이 피니까 또 그 무리에 끼고 싶어서 같이 피게 되는 거죠.” (참여자 6)*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친구들이 좀 많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 피는 애들이 좀 많아서 같이 다니면은 피워보라 그랬어요.” (참여자 10)*

#### 2) 담배의 맛을 알기위한 스스로의 시험

처음 담배를 접했을 때 어지럽고, 목 아프고, 냄새나고, 쓴 맛이 나는 경험을 했던 참여자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을 테스트하면서 담배의 맛을 알게 되었다. 입과 목으로만 담배를 피는 것이 아니라 폐 깊숙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속담배를 피면서 담배맛을 알았다고 하였다. 또한 담배를 통해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기분 좋음도 느끼게 되었으며, 이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점점 담배 양을 늘리게 되었다.

*“(처음 담배를 폼 때)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친구들*

*이) 속으로 피는 담배 그런게 있다 해가지고. 다시 그거 해보려고 폼다가 그냥 계속 피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해야 담배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참여자 2)*

*“(처음 담배 폼을 때) 그 때는 그냥 맛없다 해서 다시는 안한다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담배의 맛을 알게 됐어요.” (참여자 10)*

*“중 3인가 계속 친한 친구가 (담배를) 하나씩 주면서 (피웠는데) 어 근데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개 폼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가 공부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이제 이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8)*

### 4. 제4주제: 금연을 어렵게 하는 근목자혹의 환경

근목자혹의 환경이란 청소년들이 담배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상황과 자녀의 흡연에 관대한 부모님, 길거리에서 흡연 청소년을 그냥 보아 넘기는 어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제의식 없이 점점 흡연에 빠져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담배를 구입하는데 신분증 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은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 따라 청소년들은 담배 가격이 부담되지만 부모님이 담뱃값을 대주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참여자는 담뱃값이 비싸 전자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는데,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이 구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하더라도 제지하는 어른이 없었으며, 경찰마저 자신들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 1) 너무나 쉬운 청소년의 담배 구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는 판매 금지 품목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신분증 검사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외모의 친구나 후배를 통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한 가게에서 신분증을 확인 하더라도 검사를 하지 않는 가게가 대부분이라 다른 곳에서 담배를 구입을 하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구하지 못해 흡연이 어려운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편, 흡연 후 손이나 옷에서의 담배 냄새, 비싼 담뱃값 등

의 이유로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었는데, 전자담배 또한 자신이 원하면 중고거래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신분증 검사 안 하는) 그냥 구멍가게에서 사거나.”*  
(참여자 1)

*“좀 늙어 보이는 애들이 들어가면(팔아요)”* (참여자 2)

*“편의점에서 샀어요. 문신 때문에 학생이라고 생각을 안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 2) 흡연에 관대한 부모님

흡연 청소년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를 살펴보면 매우 관대함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들켜더라도 가정에서는 큰 제지가 없었다. 흡연 청소년의 아버지 또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차피 성인이 되면 담배를 피우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녀의 흡연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은 흡연 문제로 자녀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보다 흡연이라는 소소한 문제를 허용하면서 집 밖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녀를 달래고 주의시켰다.

*“그냥 (담배 살) 돈 부모님이 주세요. 아빠는 그냥 어차피 너 군대 가면 필 거니까 피라 하시는데 엄마는 그냥 반대하시고. 근데 뭐라 안하세요.”* (참여자 8)

*“그냥 담배 산다고 돈 달라고 하면 주셔요. 밖에 나가서 걸리지 말고 집에서 (담배) 피라고.”* (참여자 3)

*“그냥 아빠가 이제 장난 식으로 ‘담배나 피러 가자’ 이러는데.”* (참여자 13)

## 3) 방관자가 된 어른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담배를 피워도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어른은 없었다.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는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흡연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오히려 흡연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맞짱’을 뜨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담배를 피도 막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경찰도 막 그렇게 뭐라 안하니까. 벌금을 낼 것 같지도 않고. 지나가는 어른들도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니까 피도 되는 거겠지 생각이 들죠.”* (참여자 5)

*“(어른들이) 니네들 다 힘든거 아니까 알아서 떠들지 말고 (담배) 피고 가라고.”* (참여자 13)

## 5. 제5주제: 금연과 흡연 사이의 갈등

흡연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몇 번의 금연 시도와 재흡연의 반복적인 과정을 겪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다가 현재 금연 중인 참여자들은 담배로 인한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여 금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신체 변화로 인해 금연을 했다가도 그 증상이 사라지거나, 금단증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흡연을 시작하였다. 한편, 공부나 학교 선생님, 부모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계속 흡연을 하면서 갈등하는 모습도 보였다. 참여자들은 담배 이외에 자신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였으며, 대부분 자신이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을 수만 있다면 끊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 1) 신체적 변화로 인한 금연 시도

흡연 청소년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먼 미래의 질병보다는 본인이 현재 경험하는 작은 신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연을 시도하였다. 친구들과 얘기할 때 입냄새가 난다거나, 입술이나 치아의 변색이 생겼을 때, 피가래가 나왔거나 갑자기 심장쪽이 아프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바로 금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증상이 금방 사라지는 경우 바로 재흡연을 하였으며 금연의 기간이 짧았다.

*“애들이랑 말하면 애들이 입냄새 난다고. 그래서 2주 정도 끊었어요.”* (참여자 10)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술이 조금 깨매질라 그러고 이빨도 막 누레질라 그러고 그래서 끊어야겠다 하고 끊었어요.”* (참여자 15)

### 2) 대체제가 없는 담배의 중독

흡연 청소년에게 담배는 놀거리인 동시에, 학업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구였다. 담

배를 대신하여 어떤 것도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청소년은 금연을 전혀 시도하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일부 금연을 시도했다가 금단증상을 경험한 참여자는 오히려 자신이 중독되어 더 이상 금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처음 담배를 접하게 된 이유는 호기심이 큰 이유였지만 현재 흡연을 지속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 가장 컸다. 또한 심심해서, 끊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식후에 담배를 피웠으며 이로 인해 서서히 담배에 중독되고 있었다. 흡연을 시작한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담배를 대체할 만한 대안은 없었다.

*“학교에서는 뭐 10교시까지 하지. 끝나면 알바가거나 학원까지. 그러면 부모님께 늦게 들어왔다고 욕먹지. 그렇게 힘든데 또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고 학교 늦게 왔다고 욕먹지. 그러면 옆에 있는게 뭐예요. 담배잖아요. 그걸 펴요.” (참여자 16)*

*“그냥 담배가 계속 생각나는 것. 살짝 손 떨리는거. 처음에는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일 정도 지나면 못 끊을것 같아요.” (참여자 5)*

*“그 담배를 살 돈으로 모았으면 지금 ‘와 이거 비싼거 살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가끔씩 끊고 싶고, 왜 내가 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여자 8)*

## 6. 제6주제: 비흡연 청소년의 흡연하지 않는 이유

본 연구에서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보지 않은 비흡연 참여자는 2명이었다. 가장 친한 친구 5명 중 흡연자 수는 각각 5명, 3명으로 이들 역시 흡연에 익숙한 환경이었다. 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담배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친구들의 흡연 권유를 받았지만 결국 피우지 않았다. 비흡연 참여자들은 담배가 체력을 떨어뜨리며, 폐·심장 등 신체를 병들게하고, 머리도 나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담배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었고, 흡연의 유혹을 거부했다. 또한 가정에서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이라는 교육을 강조하여 받은 경우, 친구들이 권하는 담배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 1) 담배보다 소중한 나의 꿈

비흡연 참여자는 흡연 참여자에 비해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특성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체육대학 입학은 목표로 하여 체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담배를 멀리하였으며, 나머지 참여자도 담배로 인해 머리가 나빠져 학업이 지장이 생길까봐 담배를 거절하였다. 이들은 담배를 피는 친구들의 흡연 이유를 분석해 보기도 하고, 친한 친구에게 금연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은 쉽게 금연을 할 수가 없었다.

*“친한 친구들이 같이 담배를 막 시작했을 때 저도 펴볼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그냥 제 생각에서는 그냥 멋있어 보이려거나 아니면 그냥 일부러 몸 나빠지는 건데 그걸 왜 하나 싶고. 그리고 담배값도 4500원인데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굳이 그런 비싼 걸 사서 해야 될까. 그리고 제일 크게 안하게 됐던 이유가 꿈이 있으니까.” (참여자 6)*

*“(친구가) 한 번 펴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부했어. ... 담배 피면 머리가 나빠지고, 제가 또 멘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멘사 머리가 못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절했습니다.” (참여자 7)*

### 2) 흡연은 해롭다는 엄격한 가정교육

흡연은 나쁘다는 부모님의 확고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금연에 영향을 미쳤다. 한 비흡연 참여자는 가족이 흡연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부모님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본인도 스스로도 담배는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하였다. 부모님의 모범 아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연 교육은 참여자가 가장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으며, 주변의 담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였다.

*“(집에 흡연하는 분이) 없는데, 친할아버지가 담배 피다가 76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급성 폐렴. 집에서도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참여자 7)*

## 4. 논의

본 연구는 16명의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되었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처음 흡연 전 어른들에게만 허용된 담배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성인의 흡연 행위가 멋있어 보이고, 자신도 담배를 피우면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멋있어 보이거나 어른이 될 것 같은 기대로 인해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14,15,19] 맥락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담배는 어른스러움이나 멋짐의 표현이 아님을 강조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서도 담배의 광고 및 판촉을 금지해야 한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 동기에서 다른 차이점도 보였는데, 여학생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통해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감량하려는 의도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15],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할 때 성별에 따른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첫 흡연은 친구와 함께한 장난과 같았는데, 흡연의 가장 많은 동기인 “친구의 권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친구가 담배를 피워보라고 권유한 경우도 있지만, 흡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담배를 함께 피워보자’라는 의미를 확인하였다. Jeong[14]의 연구에서 흡연의 동기는 대부분 이미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본인에게도 담배를 권하는 흡연을 부추김하는 상황이었고, 여학생의 흡연 경험에서는 동아리 선배가 반강제적으로 담배를 권하거나, 흡연하는 친구의 권유에 의한 흡연 시작이 많았기 때문에[15] 향후 흡연 동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더 필요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첫 흡연 후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금연의 기간을 가졌다. 그 이유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첫 흡연의 느낌이 기대와 달랐을 뿐 아니라, 담배를 피워 본 후 받은 담배의 위해성 교육은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와 담배를 멀리하게 되었다. 호기심을 충족시킨 후 이런 자발적인 금연의 시간은 다른 질적인 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의미였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금연이 어려워지고, 평생흡연자 및 중증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1-2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 흡연 연령이 낮다고 흡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흡연을 하기까지 금연 기간이 길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 흡연 자로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23], 한 번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은 재흡연이 더욱 쉬워 평생 흡연자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인 흡연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재흡연을 하는 과정을 보면 학교나 학년이 바뀌는 등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환경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흡연을 하였다. 한편, 그동안 첫 흡연의 기억은 나뻐지만, 친구의 조언 하에 다시 담배의 맛을 알기 위해 스스로 시험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 때 흡연을 권유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흡연을 하는 또래 친구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며[14,15,19,24], 따라서 흡연을 다시 하게 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금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또래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와의 관계 변화에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다[25]. 또한 외국의 경우 친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또래 지원자를 선발하고, 선생님과 어른에 의한 흡연예방 교육이 아닌 학생이 학생을 변화시키도록 바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26],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중재에 또래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또래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에게 금연의 효과를 높이는 전략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금연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흡연은 해로우며, 특히 청소년 흡연은 어른들이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었다. 청소년들이 절대 담배를 구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흡연은 해롭다는 교육을 하고 담배를 살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길에서라도 어른들이 청소년 흡연을 말렸더라면, 청소년들은 지금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지원을 받으며 흡연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Jeong[14]의 연구에서 약 20년 전 흡연을 하는 고등학교 남학생은 흡연 사실을 숨기고, 몇몇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가족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은 흡연 사실을 부모님께 들켜더라도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이 청소년의 흡연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암묵적 지지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여학생의 흡연 경험 연구를 보면 사회에서 여학생의 흡연은 남학생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속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얘기하였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15, 19], 남학생의 경험과는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사회와 어른들의 묵인 속에서 흡연은 하나의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고[15], 잘못된 행위가 바로 잡아야 할 시기를 놓친 청소년들은 더욱 담배에 중독되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청소년 흡연 예방 정책으로 직접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 중독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금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20]. 따라서 청소년 흡연은 개인적 차원의 선택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는 동안에도 신체적 이상 증상이 생기면 잠깐 금연 하였다가, 다시 흡연을 시작하였다. 이는 Han[24]의 청소년 금연 경험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담배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 이상 증상 발생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로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증상이 금방 사라지면 바로 재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담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고, 일시적 금연으로 인해 금단 증상을 겪을 때는 의학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오히려 혼자 증상을 견뎌내야 했다. 반복되는 금연 실패 경험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담배와 격리되어야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와 고민상담자가 있는 경우 청소년들은 금연시도를 더 많이 하였는데[27-28], 이는 담배가 아닌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은 참여자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담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게다가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가정교육을 통해 담배를 멀리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29]. 비흡연 참여자 역시 가장 친한 친구 5명 중 흡연을 하는 친구는 각각 5명, 3명으로 주위에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담배 권유도 자주 받지만 스스로 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을 하는 목적과 흡연을 하지 않는 목적은 판이하게 차이를 확인하였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행위이더라도, 담배에 친숙한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금연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비흡연 청소년의 금

연이라는 바람직한 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은 고등학교 남학생은 2명으로, 비흡연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을 나타나기에 제한이 있어 향후 이들의 담배와 관련된 경험 연구는 필요하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양적인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30],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발견과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는 향후 질적인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금연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흡연을 하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놀이처럼 흡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른 첫 흡연의 경험은 오히려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후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서 다시 흡연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금연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에서 쉽게 담배를 구하며 흡연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담배로 인한 신체적 이상 증상을 경험하면 금연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곧 다시 흡연을 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흡연 청소년은 흡연 청소년과 다르게 자신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담배는 해롭다는 가정의 엄격한 교육도 받아 주변 담배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과 금연을 반복하는 경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청소년의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개발 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 단계에 맞춘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2 FCTC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Technical Report,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Korea, pp3-4.
- [2] OECD, Health at a Glance 2017(OECD indicators),

- Technical Report, OECD, France, pp70-71.  
DOI: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 [3] USDHHS(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201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USA, pp165.
- [4] KCDC, The 14th(2018) Adolescent Health Behavior Survey statistics online, 2018, Available From: <http://www.cdc.go.kr/CDC/contents/CdcKrContentView.jsp?cid=139405&menuIds=HOME006-MNU2802-MNU2895> (accessed Mar. 1, 2019)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School Based Smoking Prevention Business Guideline, Technical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pp3-5.
- [6] S. H. Choi, Y. J. Kim, K. W. Oh, Tobacco Control Policy and Smoking Trends in Korea, Technical Report, KCDC, Korea, pp530-533.
- [7] J. S. Chun, J. S. Kim, "A review of research on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6, No.1, pp.305-326, 2014.  
UCI: 1410-ECN-0102-2015-300-000517771
- [8] H. S. Lee, "Th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Smok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7, No.4, pp.229-237, 2007.  
UCI: G704-001517.2007.7.4.002
- [9] J. S. Chun, "Social, attitudinal, and intrapersonal factors influencing smoking among adolescents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21, No.1, pp.27-50, 2014.  
UCI: G704-000387.2014.21.1.001
- [10] Y. K. Lee, S. Y. Ryu, "Factors Associated with Smoking Differences of Korean Adolescents with Smoking Experience : 11th(2015)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2, pp.155-163,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2.155>
- [11] Y. S. Byeon, H. S. Lee, "Relation of the Depression and Attention Concentration by Smoking Status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0, No.2, pp.46-53, 2008.  
UCI : G704-000678.2008.20.2.003
- [12] H. S. Jeon, "Effects of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on th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by using the Data of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through from 2008 to 2014",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8, No.2, pp.99-110, 2015.  
DOI: <http://dx.doi.org/10.15434/kssh.2015.28.2.99>
- [13] H. W. Kim, Y. K. Kim, J. Y. Paik, C. B. Hong, K. L.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suicidal behavior in Korean adolescents: 12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17, No.4, pp.129-233, 2017.  
DOI: <http://dx.doi.org/10.15384/kjhp.2017.17.4.219>
- [14] H. K. Jeo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Experienc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1, No.4, pp.610-618, 2001.
- [15] Y. H. Kim, K. W. Kim, M. O. Kang, N. H.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Smoking Experience in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16, No.1, pp10-19, 2010.  
UCI: G704-001009.2010.16.1.007
- [16] K. H. Oh, D. D. Han, "Qualitative study on how male students in middle school embed smoking in their daily live: focusing on the 'nonun-aedul'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3, No.1, pp45-72, 2016.  
UCI: G704-000419.2016.43.1.010
- [17] V. Braun, V.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3, No.2, pp77-101, 2006.  
DOI: <http://dx.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 [18] M. Sandelowski,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8, No.3, pp27-37, 1986.  
DOI: <http://dx.doi.org/10.1097/00012272-198604000-00005>
- [19] B. H. Kim, H. O. Cho, K. S. Lee, "A qualitative research on adolescents' smoking motives and situational context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2, No.2, pp81-107, 2001.
- [20] M. K. Lim, H. J. Cho, "Current statu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in Korea compared with international treaty and its implementatio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61, No.3, pp148-156, 2018.  
DOI: <https://doi.org/10.5124/jkma.2018.61.3.148>
- [21] M. J. Elders, C. L. Perry, M. P. Eriksen, G. A. Giovion, "The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ng peopl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84, No.4, pp543-547, 1994.
- [22] H. S. Lee, M. R. Song, "Factors Influencing Nicotine Dep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Intending to Quit Smoking",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4, pp429-437, 2013.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4.429>
- [23]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Youth smoking prevention and the way forward, 2017, Available From: [http://www.khealth.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8&page\\_no=B2017002&pageNum=3&siteId=&srch\\_text=&srch\\_cate=&srch\\_type=&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9954](http://www.khealth.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8&page_no=B2017002&pageNum=3&siteId=&srch_text=&srch_cate=&srch_type=&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9954) (accessed Mar. 11, 2019)
- [24] Y. R. Han, "Experience of Adolescents Smoking Cessation : Use of Focus Group interview",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1, No.3, pp23-33, 2005.  
UCI: G704-001009.2005.11.1.002
- [25] S. R. Shin, C. O. Lee, G. C. Jeong, " Effect of a Smoking Cessation Motivational Program for

- Adolesc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9, No.2, pp130-139, 2013.  
DOI: <http://dx.doi.org/10.4094/chnr.2013.19.2.130>
- [26] H. S. Lee, " Ecological Systematic Model Strategy and Practice of Adolescent Smoking Prevention Program for 'Tobacco Free Generation': Focused on the case of Scotland",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12, No.4, pp91-105, 2017.
- [27] S. B. Park, G. H. Suh, S. A. Park, J. Y. Chung, "Factors affecting attempts to quit smoking in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16, No.1, pp155-165, 2018.
- [28] S. Y. Yim, M. H. Park, "Comparison of the factors affecting smoking quit attempts in adolescent smokers according to amount of smoking",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Vol.17, No.7, pp622-633, 201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7.622>
- [29] L. Chassin, C. C. Presson, J. Rose, S. J. Sherman, M. J. Davis, J. L. Gonzalez, "Parenting style and smoking-specific parenting practice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smoking onse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30, No.4, pp333-344, 2005.  
DOI: <http://jps3.doi.org.libproxy.snu.ac.kr/10.1093/jpepsy/isi028>
- [30] H. D. Son, " Publication trends in smoking-related research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n analysis of Korean academic journal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2, pp269-276,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2.269>

---

김 혜 숙(Hye Sook Kim)

[정회원]



- 2013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금연, 암환자 간호, 기본간호